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불교중흥 이루자”

2월 9일 조계사–청계천 걷기 순례 동참 30여 사부대중 참석
“자승 대종사 유지 계승하자”
3월23일까지 각자 자리서 정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2월 9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입재 1주년을 맞아 진행된 걷기명상 정진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 30여 명이 걷기명상을 하고 있다.

“불제자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수행자의 걸음이 활기찰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고 길을 밝혀주시옵소서.”

2월 9일 새벽 6시 서울 종로 조계사 대웅전 앞. 30여 사부대중이 부처님께 정진을 다짐하는 고불문을 올렸다. 1년 전 그날처럼.

2023년 2월 9일 조계사에서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걸으며 수행 정진하는 상월결사 인도순례 43일 대장정의 첫발을 내딛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1주년을 맞는 올해 2월 9일은 설 연휴가 겹쳐 자칫 소홀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순례단장 원명 스님(조계사 주지)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맞아 새벽 걷기명상 정진을 순례 동참 사부대중에게 제안했고, 이에 적지 않은 대중이 정진 동참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성사된 새벽 걷기명상 정진에는 상월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봉선사 주지), 순례단장 원명 스님, 정광고 교장 영일 스님,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정충래 전 동국대 이사, 김용현 동국대 교수, 박기련 동국대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등 순례동참 사부대중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진에 앞서 대중은 원명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1년 전 발심을 되새겼다. 동참 대중은 “우리가 내딛는 걸음을 고행이라 여기지 않고 걸음마다 보현행원의 복덕으로 삼아 무엇을 위해 걸으셨고 누구를 위해 걸으셨는지 묻고 답을 찾으며 모두가 그 처음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서 “각자는 일생일대에 더 없는 수행의 기회로 삼고, 모두는 불교의 희망과 수행과 원력을 이끌게 하는 더 없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상월의 정진이 불교중흥으로 나아가고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사회와 인류와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길에서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총도감 호산 스님은 “오늘의 정진이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밝혔다. 호산 스님은 “인도순례를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주년이라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1년 전에는 부처님을 안고 정진했다. 이제는 부처님과 열반하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지를 마음속에 안고 정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인도순례를 시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정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삼창으로 시작한 걷기명상 정진은 조계사를 시작으로 청계천 일원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걷기명상 정진을 마친 대중들은 조계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자승 대종사의 진영 앞에서 반야심경 봉독과 의식 뒤 회향했다.

이날 정진에 동참한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갈 줄 몰랐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1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정진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자승 대종사의 유지인 ‘부처님 법 전합시다’를 실천해 한국불교 중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상월결사 인도순례 동참 대중은 순례 회향일인 3월 23일까지 각자 자리서 정진하기로 했다. 또한 상월결사는 인도순례 회향 1주년 기념행사를 3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다.

대흥사 ‘그린 템플’로 탄소중립 실천

동국대 생태계서비스 연구소와
2월 6~7일, 쓰레기 제로 실천 등



기후위기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특별한 템플스테이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와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소는 2월 6~7일 ‘그린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템플스테이는 전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활동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그린 템플스테이’는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에서 진행하는 종교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사업의 일환이다. 생명존중, 연기법 등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으로 기후위기 극복의 해법이 담긴 프로그램들이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1박 2일간 일회용품 쓰지 않기, 생명존중 채식, 음식쓰레기 제로 실천 등의 체험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 방안을 배우고 소통했다.

대흥사 템플스테이 국장 법은 스님은 “우리가 처한 기후위기는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위한 해답은 소비 지향적인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것에 있다”며 “오늘의 배움과 실천 활동이 참가자들의 일상이 돼 나와 지구를 밝히는 지속가능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첫날에는 탄소중립 강의와 염주 만들기가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요가, 친환경 스킨 만들기, 발우공양 체험 등이 이어졌다. EM을 활용한 친환경 스킨 만들기 체험 강사로 나선 혜눌 스님(한마음선원 본원)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환경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교육했다.

특히 템플스테이 기간 참가자들의 식단은 모두 지역 농산물로 만든 채식이 제공됐으며, 과일 껍질 등 최소한의 음식쓰레기만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김내영 기자

동국대, 가족과 함께하는 봄 학위수여식

학 · 석 · 박사 2914명에 학위 수여



동국대(총장 윤재웅)는 2월 15일 ‘2024년 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학위수여 인원은 학사 2006명, 석사 778명, 박사 130명 등 총 2914명이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사전 행사와 공식 행사 및 부대 행사로 나눠 진행됐다. 윤재웅 총장이 박사학위 수여자 모두를 직접 격려하기 위해 오전 9시 30분부터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를 대상으로 사전 행사를 열었고, 오전 11시부터는 박사, 석사, 학사 대표와 공로상 수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동국대는 졸업생과 가족들이 동참할 수 있는 졸업식을 기획했고, 대표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통해 가족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다.

이사장 돈관 스님은 치사를 통해 “동국대는 지식의 보고이자 인격 성장의 공간이다. 여러분은 동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자기 자신을 발견했고, 인생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며 “이제 여러분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여러분이 갖춘 능력과 열정은 여러분이 가는 어떤 길이든 환하게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여러분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입학하여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며 대학생활을 보낸 첫번째 세대”라며 “어려움도 많았기에 오늘 이룬 성취가 더욱 뜻깊다. 이러한 힘든 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중일 기자

참선재단, 제주 원명선원서 美영화 선사 초청 선칠

4월 5~7일, 좌선 집중수행
금강 · 영화 스님 매일 법문

참선재단(이사장 금강 스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국 위앙종을 이끄는 영화 스님을 초청해 선칠(禪七)을 개최한다. 이번 선칠은 4월 5일부터 7일까지 참선재단 도량인 제주 원명선원(선원장 혜오 스님)에서 열린다.

선칠은 매일 새벽 3시부터 밤 12시까지 1시간 좌선, 20분 걷기를 14회 반복하는 집중 좌선 수행이다. 매일 금강 스님과 영화 스님이 법문을 하며, 이 시간엔 누구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질문할 수 있다. 문답을 통해 참여자 각 개인의 상황과 진도에 따른 개별적인 지도도 받을 수 있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스페인,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출재가 수행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모든 법문과 지도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영화 스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남가주에 위치한 위산사(Wei Mountain Temple)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 법장사, 실리콘밸리 금림사, 한국 보산사와 보라선원 등에서 많은 제자를 지도하고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 열리는 선칠에는 영화 스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 전 세계의 수행자들이 찾아온다. 스님은 지난 20여 년간 선과 정토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사십이장경, 유교경, 약사경,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반야심경, 육조단경, 화엄경 등 수많은 대승경전을 강설해왔다.

원명선원은 제주 최초로 선원을 개원한 곳이다.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 스님, 8대 종정 서암 스님, 숭산 스님과 법정 스님 등 많은 선사가 법을 펼친 도량이다. 근래 40여 년 동안 조사선을 펼친 대효 스님이 참선재단을 설립하였고, 현재는 참사람의 향기 수행 운동을 펼치는 금강 스님이 맥을 잇고 있다.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스님은 “올해 조계종의 주요 종책 중 하나가 선명상의 대중화”라며 “서양문화에 익숙한 현대인과 젊은이들을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선칠은 한국 대승불교의 토대 위에 미국에서 발전한 위앙종의 가르침, 수행지도 경험이 풍부한 영화 스님과 그가 이끌고 있는 승가 공동체의 지도력이 더해져, 선명상에 관심을 둔 각계각층 수행자를 위한 정진의 장”이라며 “특히 동서양이 만나 더욱 발전된 선명상법은 서구화된 젊은이들과 현대인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선명상을 경험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010-6788-8451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 발리 불교문화 순례 6일

세계 7대 불가사의중 하나로 불리우며,
1,200여 년전 불교문화 역사가 찬연한
빛을 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대탑으로 떠납니다.
보로부두르 대탑은 70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사원으로
1,460면의 아름다운 부조와 432기의 감실에 불상이
모셔져 있는 가히 불국토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부조에는 부처님의 탄생등 부처님의 생애와 전생담을
조성한 생생한 장면들과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최상층에는 부처님의
화엄세계를 조성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고대에 불교왕국이어서 전성기때는
보로부두루 대탑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탑이 조성된
세우사원과 프라오산 불교사원등 많은 사원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최고의 낙원이자 신화의 섬이라 불리는
남태평양의 섬 발리는 현대문명에 때 묻지 않은
자연의 보고입니다.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팀 (02-2011-1810)
◈ 교육일정 | 5월 27일 출발 ~ 6월 01일 도착 (6일간) ◈ 교 육 비 | 229만원
◈ 방 문 지 | 보로부두르 불교사원, 프람바난 힌두사원, 천탑사원인 세우불교사원, 플라오산 불교상원,
멘듯사원, 파원사원, 발리의 땀박실링 사원, 울루와뚜 절벽사원, 따나롯 해상사원, 따만아윤 사원






담당여행사 및 접수 |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